

금융권 격전지 된 알뜰폰 시장… “자본력 기반 잠식 우려”

가입자 1306만명 달하는 큰 성장
통신3사보다 요금 30% 이상 저렴
KB, 은행 부수업무 지정 요청
토스, 사전 신청에만 15만명 몰려

금융권이 알뜰폰 격전지가 됐다. 주요 은행과 핀테크, 상호금융까지 알뜰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해있다. 알뜰폰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최근 알뜰폰 사용 증가세가 뚜렷하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전체의 16.9%에 달하는 1306만명(1월 기준)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수 40만명을 확보한 KB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알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 알뜰폰 가입자수 40만명을 확보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선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폰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스는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알뜰폰 요금제를 공개했다. 사전 신청 시에만 15만명이 몰리는 등 주목을 받았다. 토스모바일 요금제는 토스 앱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

하고, 퀵 배송업체 바로고와 협업을 통해 유심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공동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 ▲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KT망을 쓰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프, 세종텔레콤 등 4개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요금제 12종을 선보였다. '신한 모두다 맘껏 7GB++'는 월 1만8700원으로 기본 데이터 7GB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시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쿠폰도 발급해준다. 신희중앙회도 최근 한국케이بل텔레콤(KCT)과 제휴를 통해 '신희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에 출시한 총 6종의 알뜰폰 요금제는 가격이 이통 3사 대비 반값 수준이다. 금융권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알뜰폰 업체들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너도나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 알뜰폰업체들은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한 중소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도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현대로템, EMU-320 수주… 독주 체제

〈한국철도공사 KTX 신규 고속열차〉

136량, 7000억원 규모 낙찰
우진산전 보다 기술점수 높아

현대로템이 7000억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신규 고속열차 입찰을 따냈다. 이번 입찰은 17년 만에 현대로템 단독 무대가 아닌 2파전으로 치러져 관심을 모았지만 현대로템이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도전자인 우진산전은 1단계 기술평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오는 4월 진행할 1조원 규모의 SR 고속열차 사업 역시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EMU-320 136량의 낙찰공고를 확인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낙찰금액은 7100억원, 1량당 52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 금액은 현대로템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2조8725억)의 24.6%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전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코레일 철도차



EMU-320

량 입찰에 현대로템 이외의 업체가 참여한 것은 2005년 프랑스 알스톰 이후 처음이었다. 다만 기술 점수에서 현대로템은 89.81점을 받았고, 우진산전은 79.30점에 그치면서 현대로템의 독주가 이어지게 됐다. 현대로템 협력업체였다가 성장한 우진산전은 고속철 제작 경험이 없다. 그간 서울 지하철 5·7·8호선, 코레일 1호선과 일산선 등을 제작해왔다. 코레일은 오는 21~22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달 28일 내로 낙찰자를 최

종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 특히 전동차 업계 1위인 우진산전이 스페인 고속열차 업체인 탈고(Talgo)사와 손을 잡고 출사표를 던져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2단계 가격분리 동시입찰제’를 적용해 1차 평가에서 최저 수준(85점)의 기술평가만 통과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다. 저가 수주 전략을 내세운 우진산전은 1단계만 넘으면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탈고와의 최종 협상이 깨진 우진산전은 단독응찰을 결정했다. 철도업계는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발주한 EMU-320 112량(14편성) 사업에도 현대로템이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는 평가다. 해당 사업은 신규 차량 확보 5250억원, 유지보수 4750억원 등 총 약 1조원 규모로 방식은 KTX 평택~오송선 사업과 같은 2단계 동시입찰제다. /양성운 기자 ysw@

LG유플러스 장기간 이용 고객 ‘LG트윈스’ 경기초청

LG유플러스가 자사 모바일이나 홈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고객을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의 경기초청하는 ‘엘심동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과 IPTV를 동시에 5년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하고 4월 27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LG트윈스 경기 관람권(1인 2매)과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채윤정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정탁 선임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사진)이 20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탁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주총은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 이후 처음 개최됐다. 사내이사로는 정탁 대표이사와 함께 이계인 트레이딩부문장과 이진혁 에너지부문장이 함께 신규 선임되었다. 이는 에너지와 상사 양 부문을 균형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인 한중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역



임한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신규 선임해 전문성과 경영투명성을 더했다. 또 주당 배당금은 1000원으로 결의했다.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이와 함께 철스크랩 관련 트레이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사업목적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추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탁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의 주도 하에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 잡힌 추진으로 주주가치 극대화 기조를 이어간다. /양성운 기자

“국적 LCC 최다 노선… 재운항·증편 가속”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 14주년

제주항공이 국제선 취항 14주년을 맞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09년 3월 20일 인천~오사카 노선 주 7회 운항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 2009년 15만명을 수송했고, 2012년 119만명을 수송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4분기 선제적 일본노선 증편으로 수송객 수 1위를 달성하며 영업이익 187억원을 기록해 흑

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제주항공은 동남아 주력 노선인 베트남·필리핀 노선에서도 각각 평균 93%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국제선 수요 급반등 분위기 속에 재운항과 노선 증편을 가속화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37개의 국제선을 운항하며 국적 LCC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 중”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지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 대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KT “PASS로 국민비서 이용하세요”

SK텔레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PASS(패스)앱에 가입한 1800만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약 52종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

아우디, 전기차 앞세워 역대급 실적 달성

작년 영업이익 76억 유로, 40% ↑ 글로벌 위기에도 폭발 성장 이뤄
아우디 등 폭스바겐 프리미엄 브랜드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아우디는 지난해 매출이 618억 유로에 영업이익 76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6.4%, 4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2.2%로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상승했다. 순

현금흐름도 48억 유로로 역대 두번째를 달성했다. 아우디는 글로벌 공급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관리 능력과 가격 정책에 더해 벤들리와 람보르기니 등 브랜드도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순수 전기 차량 인도량도 상당수 증가했으며, 올해 Q6 e-트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